

치과의사아버지 국교생 딸 상해치사 사건 의붓엄마도 폭행 가담

“결혼생활 방해받아”

속보=서울 서초구 반포동 여자 국교생 피살 사건은 딸을 결혼생활의 방해물로 여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다.

아버지 홍길수(41·치과의사)씨를 구속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의붓어머니 정순덕(36)씨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의붓딸 지민(9·비국교4)양의 배설물이 묻은 속옷을

휴지통에서 찾아내 지민양의 얼굴에 들이밀며 심하게 꾸짖은 뒤 오후 7시30분께 귀가한 남편과 함께 지민양의 아랫배를 발로 차고 전깃줄로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.

정씨는 경찰에서 “지난해 4월 재혼한 뒤 남편을 잘 키워보려고 했으나 친자식이 아니어서인지 정이 가지 않고 결혼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자주 때렸다”고 말했다.

경찰은 남편 홍씨를 지난 14일 구속한 데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지민양 오빠(11)가 뒤늦게 이런 사

실을 밝힘에 따라 정씨를 집중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.

지민양의 오빠는 “평소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밥을 굶기거나 자주 폭행했으며, 지민이가 숨진 뒤 아버지가 ‘일이 잘못되면 아파와 엄마를 못보게 되니 나 혼자 때렸다고 말하라’고 강요해 거짓말을 했다”고 말했다.

경찰조사 결과 홍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민양 남매에게 “너희들은 도벽이 심하고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사실을 써라”고 강요해 거짓자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. 김영희 기자

